

이태원 참사 한 달...특수본 "형사책임 수사, 지켜봐 달라"

지난 1일 출범해 수사 30일 다다른 특수본 "국민 보기에 지지부진...차근히 단계 밟아"

이태원 참사 한 달을 하루 앞둔 28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해 지난 1일 출범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특수본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달 가까이 수사한 특수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밤낮·주말 없이 수사했다"며 "국민이 보기에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서 결국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2차 소환조사했고,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구청장과 김 전 정보과장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특수본은 이입제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1차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금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신병이 결정되고 나면 추가 수사를 통해 2차 신병(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추가 피의자 입건도 말씀드릴 수 있겠

다. 금일 조사가 끝나면 신병 결정에 필요한 조사는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골목 폭을 좁아지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튼호텔 대표이사도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입건한 17명 외에 소방청 간부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에는 세종 소재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소방청장 직무대리 사무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 소명이 됐다"며 "소방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소방대응 발령 시 중앙긴급구

조통제단이 가동돼야 하는데, 참사 당일에는 실제 가동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서상 가동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을 들어다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참사 발생 원인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3D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과수 자료와 별도로 국내외 인과 응집에 따른 밀집도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못 박아서 말할 순 없다.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속히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선욱기자



서울 하늘에 뜬 무지개 28일 오전 서울 남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에 무지개가 떠있다.

광주·전남 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불승인 남발 규탄

광주·전남 노동자 단체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신청 승인 절차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와 광주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질병 판정위)가 올해 들어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산재 요양 신청에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타이어 3건, 현대삼호중공업 11건 등 14건이 불합리한 사유로 (산재 신청을) 불승인했다"면서 "특히 공단 자문사회의 심사 소견 조작까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청 노동자 A씨의 추가 상병을 불승인한 공단 자문사회의 심사결과서를 보면 심사위원 6명 중 5명의 불승인 사유 문구가 모두 똑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A씨는 27년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양 무릎에 관절 질환 등이 생겼다. 지난해 11월 오른쪽 슬관절염과 내반증으로 수술하고 산재 승인을 받았다. 올해 5월에는 왼쪽 슬관절염 등 수술로 추가 상병 산재를 신청했는데 승인되지 않았다"며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한 공단 측 심의 결과를 문제 삼았다.

이어 "이미 경추와 오른쪽 무릎질환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 승인을 하고도 요양 후 6개월 만에 수술한 왼쪽 무릎의 추가 상병에 대해서 불승인하는 것은 주치의의 소견, A씨의 작업 이력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산재불승인 13건에 대해서도 "10년 8개월에서 많게는 37년 동안 중량물 취급작업,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을 하며 생긴 급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이었다"며 "주치의의 업무 관련 인정 소견이나 상병명이 있지만, 공단과 질병 판정위는 불승인을 남발했다"고 역설했다.

심사 위원으로 선임됐던 노동조합의 노동안 전보건 전문가가 모두 배제된 데 대해서도 거세게 성토했다.

노조는 "현장 작업 공정이나 작업 자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배제하고 소위 의사나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면서 "공단과 질병 판정위는 자문사회의 운영 불공정, 산재 불승인 남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질병 판정위 사무실을 잇따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또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점심 시간을 이용해 공단과 질병판정위를 규탄하는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이슬비기자

또 우회전 사망사고...40대 여성,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

이면도로를 걷던 4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마을버스 기사 A(6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행인 B(4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